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제 41 - 33 호

2024년 8월 18일

- 이번 주 사랑방공동체 학교가 개학합니다.
꾸러기학교, 어린이학교 22일(목), 멧쟁이학교 18일(주일)
- 멧쟁이학교 개학여행이 19일(월)부터 3박 4일간 지리산에서 있습니다. 날씨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외국 기독교학교 교장단 연수 과정이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주에는 사랑방공동체에서 선교사 파송하는 순서가 예배 중에 있습니다.
- 코로나 19로 카톡으로 전달되는 성서일기를 후반기부터 중단합니다. 성서일기에 꾸준히 마음 쏟으시기 바랍니다.
- 지난 16일(금)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김중필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지성 목사 · 저경하 사모 가정 (감사)
 윤호중 · 하경임 집사 가정 (감사)
 김영희 권사, 김영화 권사, 임은숙 집사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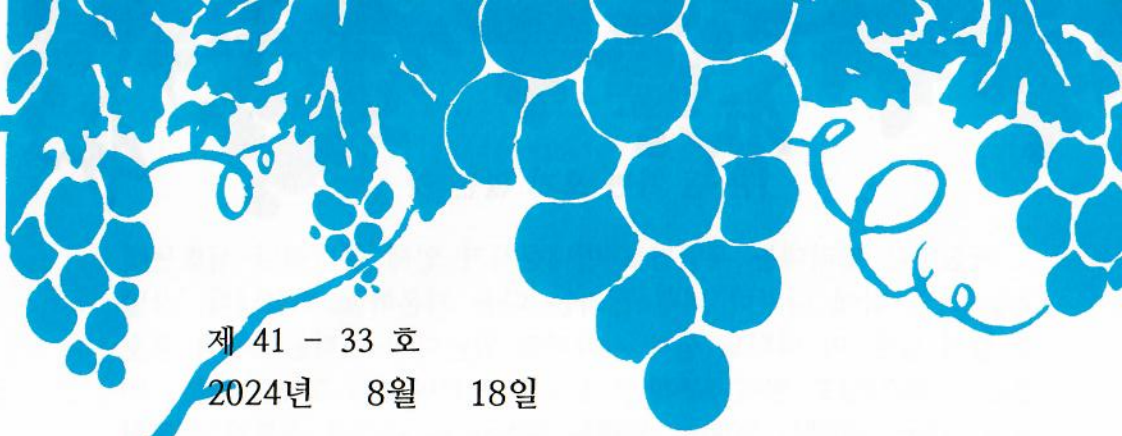
강단을 꽃으로 : 정연갑 집사 (범사에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것

아침마다 올려대는 폭염경보 안내문자가 언제 끝나려나 싶었는데 오늘 저녁 밖에 나가니 며칠 전과는 다른 기온이 느껴집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더위도 점차 사라지고 있음이 느껴지는 8월의 중순입니다. 2024년도 벌써 3분의 2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10대는 10km, 20대는 20km, 30대는 30km 로 시간의 속도가 느껴진다고 하는데 지금 몇 km의 속도로 시간을 달리고 계신가요? 2024년 이 이제 4개월여 남은 것을 생각하니 그동안 지나왔던 시간들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잘 지내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에베소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17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에서 아낀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 성경의 뜻은 ‘구입하다’, ‘사다’, ‘속량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어떤 것을 산다는 것은 댓가를 지불해야하는 것, 값을 지불해야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속량한다는 것은 몸 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사용한다는 것을 넘어 시간에 대해 정성과 노력과 마음의 댓가를 지불하여 나의 것이 되게 하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5장 17절에 이어 나오는 뒷부분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이들에게 서로 순종하며 주님께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시간 안에 채워지는 양과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만을 사셨지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졌지만 사용하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20시간, 어떤 사람은 8시간. 그냥 흐르는 시간 말고 내가 의미를 두어 보내는 나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24시간이라는 그 시간동안 나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할 때, 8개월은 양치를 하고, 7년 6개월은 밥을 먹고, 8년 9개월은 화를 내고, 12년 6개월은 걱정을 하고, 27년 9개월은 잠을 자고, 33년 4개월은 공부하거나 일하는데 사용하고, 단 4개월은 웃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나니 100년 중에 9년 2개월이 남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시간 사용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통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무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연습해볼 기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인 실제상황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나의 시간을 돌아보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하듯, 정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동안 사랑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년의 남은 4개월도 금방 지날 것이며, 언젠가 우리의 시간은 모두 끝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주었던 시간으로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물으실 때에 “시간을 아끼며 이웃을 사랑하다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주간의 말씀

“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디만,
그것은 하나님,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
< 창세기 45장 5절 말씀 >

< 수요일기도회 >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약한 나로 강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목마른 사름

기도 : 최연우 집사

성경 : 예레미야서 17장

제목 :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죄를 기억하라

1. 내용: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분노하신다. (What)

<문단구분>

1~11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12~18절 예레미야의 간구

19~27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2. 의미: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Why)

1) 유다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타락한 마음 때문이다.

2) 하나님은 사람을 책임 있는 존재로 부르신다.

3)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외적 표징이다.

3. 적용: 다시 하나님께도 돌아가자. (How)

1)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자.

2)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명받은 대로 충실하게 살아가자.

3)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지금, 여기에서

‘불별더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려주려는 듯, 정말 이번 여름은 아주아주 덥네요. 우리 모두 지금까지 잘 견뎌왔으니 남은 8월의 무더위도 잘 이겨내 보아요.

저는 올여름에, 이런 엄청난 더위도 짝 잊을 수 있을 만한 좋은 것을 몇 가지 얻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여름공동체생활에서 받았 습니다. 우리 가족이 2003년 8월에 무림리로 이사했고, 2004년부터 여름공동체생활에 참여했으니 20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그동안 여름 공동체생활은 늘 저에게 새 힘을 부어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여름공동체생활에는 기대하는 마음 반, 걱정하는 마음 반을 안고 왔어요. 사랑방공동체에서 지낸 20년을 돌아보면 기쁘고 행복했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교회가 겪은 큰 어려움으로 그런 기쁨과 행복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진 것 같았어요. ‘다시 그 시간이 돌아올 수 있을까...’, 나와 우리, 모두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런 저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걱정과 두려움이 짝 사라져버리고 새 힘과 꿈이 생겼으니까요. 매일 코이노니아 시간과 찬양 시간, 그리고 여러 지체와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그 끊어졌던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느꼈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지체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분명 힘든 일인데도 기쁨으로 섬기는 지체들의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어려웠던 지난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내놓은 지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아! 나는 이 사람이 이런 큰 어려움을 그렇게 오랜 시간 겪은 것을 어쩔 이렇게도 몰랐을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잘 견뎌왔구나, 참으로 대견하고 훌륭하다.’

지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수록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작은 일들에 목을 매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작은 눈으로 좁은 세계를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름공동체생활을 지내며 꿈을 되찾은 저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며, 지금, 여기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기쁨과 행복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따뜻한사랑방 이재신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요한복음 3 : 16-17 인도자
68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시 편 34 : 18,22 인도자
다함께

272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창세기 45 : 1-15 설교자

선하신 목자 따뜻한사랑방

“ 신앙으로 새롭게 되십시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620 설교자
다함께

438(1)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이승호 이어람 / 봉헌위원 : 전경희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동기도문저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앙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신앙으로 새롭게 되십시오

요셉과 형제들. 요셉은 자신에게 심각한 잘못을 범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걱정적인 감정과 함께 드러내자 형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겁을 먹어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화해의 말을 선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셉의 삶의 해석. 요셉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성숙되어졌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치. 하나님의 일하심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뜻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모든 깨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구원의 풍성함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신앙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 과거의 잘못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태일 목사 / 기도 : 하경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며칠 후 8월 22일에 2학기 개학을 합니다. 개학을 준비하며 꾸러기들에게 방학 편지를 보냈습니다. 6월에 포천소방서 견학을 가서 다 함께 찍은 추억이 담긴 사진을 인화한 후 사진 뒷면에 안부를 묻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개학 날에 반갑게 만나자는 당부의 말을 적어 8월 교육계획서와 '아빠와 함께 캠프' 때 아빠들이 아내에게 쓴 편지와 함께 각 집으로 보냈습니다.

지금쯤 잘 도착했겠지요?

8월 15일에는 꾸러기 부모님들이 모두 모여 개학맞이 청소를 하셨습니다. 철봉 아래 매트와 무지개매트를 닦고 큰 블럭과 함께 마당에 넣어 일광 소독을 시켰습니다. 장난감들과 작은 블럭, 레고도 씻어서 말리고 탁자와 의자, 사물함과 신발장도 깨끗이 닦고 청소하셨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힘을 모아 수고해주신 부모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개학 날까지 회의도 하고 청소도 하며 소중한 꾸러기들 맞을 준비를 계속할 겁니다. 새롭게 시작될 꾸러기학교 2학기를 응원해주세요!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여름방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 어린이들은 가족과 여행도 다녀오고, 섬기는 교회의 여름 행사에도 참여하고, 이제 얼마남지 않은 방학날동안 방학과제에 힘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린이학교가 방학을 하면 학교도 조용하고 쉬는 날들이 이어질 것 같지만 다음 학기를 무리 없이 시작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수고는 계속됩니다. 습한 여름 날 목재로 이루어진 물건이 많은 교실들에 곰

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 교실에 돌려놓은 제습기의 물을 버리고,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또 2학기에 있는 각종 행사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개학하자마자 있을 8월 반별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에 필요한 숙소와 방문지들을 예약합니다. 또 9월에 있을 선교바자회의 물건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도매시장을 다녀오고, 10월에 있을 도보여행지를 선정하고 숙소를 확인합니다. 또 내년 1월에 있을 6학년들의 졸업여행도 여행지가 해외인만큼 미리 항공권을 예약하고 숙소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그 외에도 2학기에 조정되는 수업과 강사선생님들 연락, 수시로 있는 편입학 면담과 새 학기 교재 선정과 주문도 중요하게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이제 이번주 목요일이면 설렘과 기대감으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어린이학교는 방학동안 즐거운 시간보내며 몸도 마음도 쑥쑥 자란 어린이들과 함께 2학기에도 행복할 준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강렬한 햇빛과 더위가 함께했던 여름방학도 저물었습니다. 멋쟁이학교는 여느 때와 같이, 2학기를 지리산 개강여행으로 시작합니다. 도보여행과는 또 다른 육체적으로 힘든 여행입니다. 많은 불편과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요. 작년만 해도 비가 많이 와서 도중에 하산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같은 고생의 기억은 모두의 기억에 강하게 자리잡아서, 지금도 종종 멋쟁이들은 그 때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 만큼 학기의 시작이 힘겨움을 함께 감당하는 여행이 되는 것은, 도리어 서로의 결속을 강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후배의 짐을 들어주는 선배, 손을 잡고 걸어주는 친구,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주고 함께 해결하는 광경들이 이번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2학기도 좋은 시작을 하게 되겠지요. 이번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오늘 한 일

오늘은 아침부터 여러 가지를 준비 하였다 무 심는 것, 배추 심는 거와 깨 베는 것까지, 고추 따기 푸성귀 심는 것까지...

오전에 여러 가지 파종을 하였다. 무심기와 그 외 다른 것을 심었다. 몇 분이 도와 주셨는데 심고 싶은 것을 다 심지 못하였다.

오늘 다 심고 내일부터는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세월이 참 빠르다, 벌써 칠월도 지나고 팔월도 다가서 겨울 김장 할 채소를 심을 때가 되다니, 일년이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고 벌써 겨울을 준비할 시간이 되었나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낀다.

이번 주는 글을 쓰는 날이란다. 무슨 글을 쓸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나서 멍청하게 하우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진용이네집 거실에서 물이 나온다 해서 그냥 귀찮아서 물을 끄고 기다리라고 했다. 오후에 그 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멍청하게 멍 때리며 있고 싶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이것저것 주섬주섬 챙겨들고 진용이네로 갔다.

가서 보니 물 나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다. 진작에 와야 했는데 많이 미안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은 물을 정지시키고 바닥을 파기 시작하여 두 군데를 파니 한군데에서 물이 나와서 거기를 진용이 아빠는 땅을 넓게 파라고 하고 나는 창고에서 준비물을 챙겼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준비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하고 찾기 시작하여 이것저것 챙겼다. 다행이도 준비할 것은 다 있어서 일단은 물을 막았다. 이제 조금있다가 진용이네로 마무리 하려 가야 한다.

이글을 쓰면서 생각 하는 것이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거 같다.... 만일 조그만 그 부족 하나가 없다면 그것을 구할 때까지 모든 것을 멈추어야 하니까.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현재 옆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자.

그루터기사랑방 나송주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315장, 289장

성 경 : 골로새서 1 : 9-12

말 씬 :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기후 재난 상황>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의 문제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광복이후 한국 교회의 역할>

1) 광복 79을 맞으면서 독립을 위해 애쓴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며 사회 문제들에 교회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좋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사랑방공동체를 위해

1) 중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사랑방에 머무는 동안 뜻깊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2)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이 잘 치료되고 회복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중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숙소도 정리하고, 식사도 마련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공동식구들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드리는 식사를 드시고 많이 감격해하시고 또 집과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헤어질 때 눈시울을 붉히실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각 처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가 이 분들의 마음에 오래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밭에서는 김장을 대비하여 배추와 무를 심고 빨갛게 익은 고추도 따고 새롭게 오이와 상추도 심는 등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 학교들의 개학을 앞두고 여러 곳을 정비하고 정리하는 작업들도 한창입니다. 상반기도 그랬듯이 하반기 생활도 함께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